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탱크’ 최경주 오늘 정상 오른다

## PGA 소니오픈 3R 15언더 선두...퍼펙트 우승 눈앞 2위 윌킨슨과 4타차...나상욱 10언더 공동 3위 선전

‘안도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의 무한 질주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 사흘째에도 계속됐다.

최경주는 13일(한국시간) 하와이주 호놀룰루 와 이알레이 골프장(파70·7천68야드)에서 계속된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1개를 곁들이며 4언더파 66타를 쳤다.

사흘 연속 선두를 지킨 최경주는 중간 합계 15언더파 195타로 2위 팀 윌킨슨(뉴질랜드·11언더파 199타)에 4타차로 앞서게 돼 시즌 첫 승과 함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눈 앞에 뒀다.

최경주와 같은 조에서 경기한 나상욱(24·코브라골프)도 1타를 줄이며 중간 합계 10언더파 200타로 스티브 마린노(미국)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라 최경주와 우승을 다투게 됐다.

3라운드 초반 최경주를 위협한 선수는 올해 처음 PGA 투어에 참가한 윌킨슨이었다.

최경주보다 먼저 경기를 끝낸 윌킨슨은 3라운드에서 보기없이 8개의 버디를 잡아내 8언더파 62타의 데일리 베스트샷을 날리며 중간 합계 11언더파 199타로 공동 1위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최경주는 파4인 1번홀과 2번홀에서 정교한 퍼트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기분 좋게 출발한 뒤 이후 6개홀에서 정규 타수만에 그린에 볼을 올렸지만 어렵게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1,2라운드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냈던 9번홀(파5)에서 최경주는 티샷을 309야드나 날리며 2온에 성공

한 뒤 가볍게 버디를 잡아냈지만 11번홀(파3)에서 티샷을 그린 오른쪽 벙커에 빠뜨리는 바람에 이번 대회 두번째 보기를 기록했다.

12번홀(파4)에서도 티샷을 벙커에 빠뜨렸지만 파로 막아낸 최경주는 14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을 1.5m에 붙인 뒤 1타를 줄였다.

최경주는 마지막 18번홀(파5)에서도 두번째 샷을 그린에 못미치는 벙커에 집어 넣었지만 세번째 샷을 1.8m에 떨어 뜨린 뒤 버디 퍼트를 뚝딱 2위 윌킨슨과의 격차를 4타차로 벌렸다.

나상욱의 선전도 눈에 띄었다. 전반에 2개의 보기를 2개의 버디로 맞바꾼 나상욱은 11번홀(파3) 보기로 우승권에서 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15번홀(파4)에서 1타를 줄인 뒤 18번홀에서 세번째 샷을 60cm에 붙인 뒤 기분 좋게 버디로 3라운드를 마무리했다.

또 한명의 한국 PGA 투어 멤버 양용은(36·테일러메이드)은 버디 3개, 보기 2개를 묶어 1언더파 69타를 쳐 중간 합계 4언더파 206타로 공동 30위에 올라 마지막 라운드에서 상위권 진입을 노리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최경주가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 프로골프 소니오픈대회 3라운드 17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봅슬레이팀 사상 첫 월드컵행

한국 썰매종목 개척자 강광배(35·강원도청) 감독이 이끄는 봅슬레이 대표팀이 사상 첫 월드컵 시리즈 진출권을 따내는 쾌거를 이룩했다.

봅슬레이 대표팀은 13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파크시티 경기장에서 치러진 2008 아메리카컵 2차 대회 2인승 경기에서 8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전날 1차 대회에서 7위에 올랐던 한 세계 랭킹 18위...세계선수권도 출전

미국이 이번 시즌 국가별 랭킹 포인트에서 18위를 차지, 20위까지 주어지는 2008-2009시즌 국제봅슬레이연맹(FIBT) 월드컵 시리즈 출전권과 함께 내년 세계선수권대회(독일 알텐베르크)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얻었다.

한국 봅슬레이가 국제대회에서 ‘톱10’에 포함된 것은 물론 월드컵 시리즈 출전권을 따낸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월드컵 시리즈 출전권 확보의 쾌거에는 감독 겸 선수로 나선 강광배 감독의 역할이 컸다.

투지와 스패런던 선수로 3회 연속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강 감독은 이번 아메리카컵 투어에 2인승 봅슬레이 파일럿(조종수)으로 출전, 브레이크맨 역할을 맡은 이진희(강릉대)와 ‘찰떡 호흡’을 맞추면서 1차 대회 7위와 2차 대회 8위의 성과를 일궈냈다.

이번 대회에 나선 대표팀의 봅슬레이에는 ‘KOREA’ 대신 ‘USA’의 이름이 선정됐다. 주최 측에 500달러(약 47만원)를 내고 대회 기간 동안 봅슬레이를 빌려서 출전했다.

2003년 강원도청 봅슬레이팀 창단 때 2인승 1대를 구입했지만 지금은 탈 수 없을 만큼 부서져 아쩔 수 없이 대회 때마다 빌려서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어서다.

더구나 자체 봅슬레이가 있다고 해도 훈련의 근거지인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데만 왕복 500만원의 비용이 들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번 대회에 타고 나선 2인승 봅슬레이도 1993년에 사용하던 것으로 참고 보관돼 있던 ‘골동품’을 수리해서 탔다는 게 강 감독의 설명이다.

### 봅슬레이 빌려서 대회출전 악전고투

### 세계 랭킹 18위...세계선수권도 출전

## 영암 아크로 CC ‘탈바꿈’ 회원제→퍼블릭으로 전환

영암 아크로CC가 회원제에서 퍼블릭골프장으로 전환했다.

아크로CC는 12일 “국내 골프장이 300개에 육박,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전담에서 2~3년 안에 현재 12개 인 골프장이 2배 가까이로 늘 것으로 보여 경쟁력을 갖춘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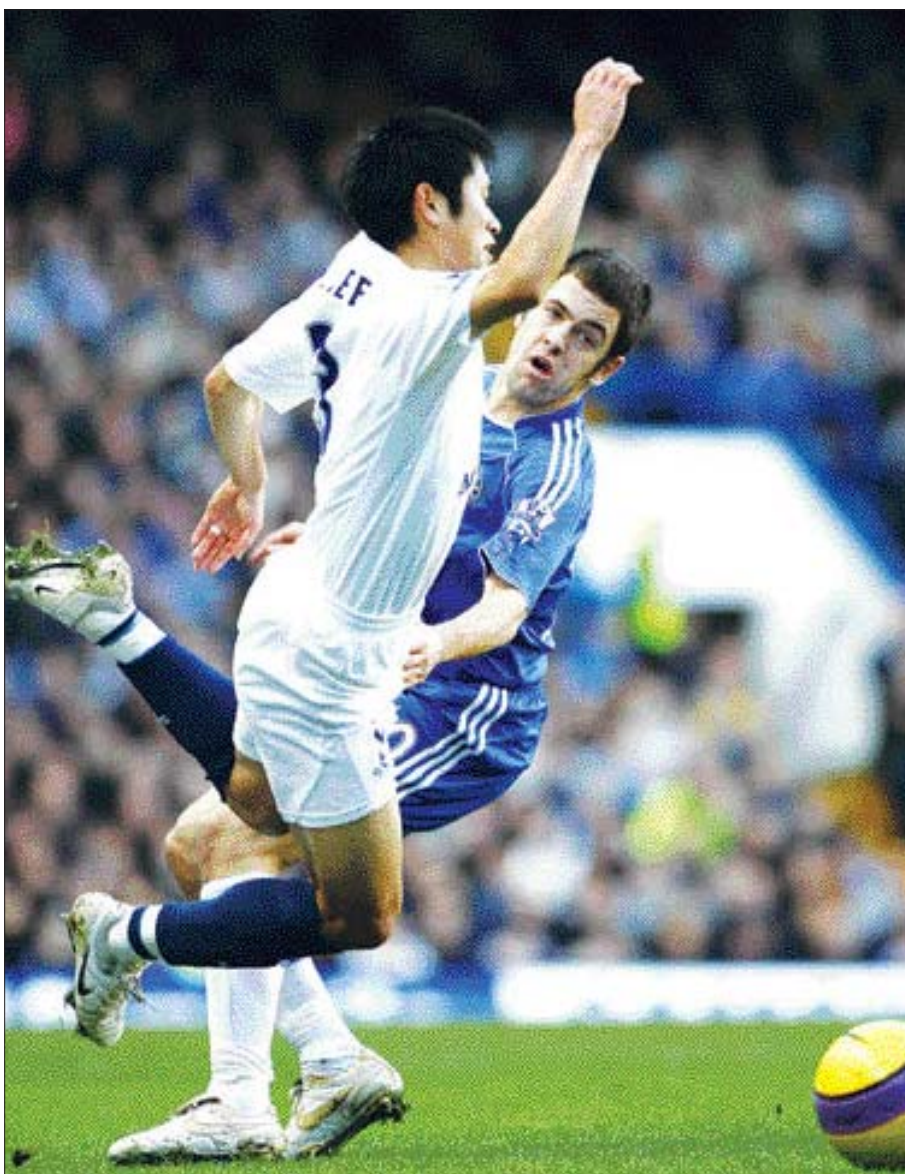
일을 기해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퍼블릭 골프장을 회원제로 전환한 사례는 있었지만 회원제를 퍼블릭으로 전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골프업계에선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크로 CC는 퍼블릭으로 전환하면서 회원 500여 명의 입회금을 모두 반환했다.

이용요금은 평일 8만 원(카트비 별도), 휴일 12만 원(카트비 별도)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3일 새벽 영국 런던 스탬포드브리지에서 펼쳐진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2차전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에서 토트넘 이영표(왼쪽)가 첼시의 조콜의 공을 뺏으려다 넘어지려 하고 있다. 토트넘이 첼시에 0-2로 완패했다.

/연합뉴스

# 이영표 11경기 연속 선발 출전

## 팀은 첼시에 0-2 완패 이동국·설기현 결장

이영표(31·토트넘)가 지지치 않는 체력을 과시하며 11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했지만 팀은 패배했다.

이영표는 13일 새벽(한국시간) 영국 런던 스탬포드브리지에서 펼쳐진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2차전 첼시와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교체 없이 전·후반 90분을 뛰었다.

지난달 7일 유럽축구연맹(UEFA)컵 안더레흐트전 이후 11경기 연속 선발 출전이다. 특히 이 가운데 9경기를 풀타임으로 뛰고 이영표는 무려 11경기에서 971분을 소화해냈다.

지난 10일 아스널과 칼링컵 준결승 1차전 이후 사흘 만에 변함없이 왼쪽 풀백으로 나선 이영표는 첼시 공격수 조 콜의 침투를 전담 방어하는 등 주로 수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영표를 비롯한 토트넘 수비진은 그러나

첼시의 화력을 막아내지 못하고 0-2로 완패했다.

첼시는 전반 19분 줄리아누 벨라티가 30m짜리 중거리포 선제골을 성공시킨 데 이어 후반 36분에는 손 라이트 필립스가 추가골을 꽂아 승부에 해기를 박았다.

토트넘은 6승6무10패, 승점 24로 12위에 머물렀고, 홈에서 74경기 무패행진(55승19무)을 벌인 첼시는 14승5무3패(승점 47)를 기록했다.

이동국(28·미들즈브러)과 설기현(28·풀럼)은 나란히 결장했다.

이동국은 리버풀과 홈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결국 출전 명령을 받지 못했다. 미들즈브러는 조지 보아팅이 전반 27분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26분 리버풀 페르난도 토레스에게 동점골을 허용, 1-1로 비겼다.

설기현도 웨스트햄과 원정경기에서 벤치만 달구다 머물렀다. 전반 7분 사이먼 데이비스가 선제골을 성공시킨 풀럼은 전반 27분에 동점골을 내준 데 이어 후반 24분 역전골까지 허용, 1-2로 패하며 강등권인 19위(2승9무11패 승점 15)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호날두 해트트릭...맨유 선두

## 뉴캐슬에 6-0 승...박지성 결장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완파하고 리그 선두를 탈환했다.

박지성(27)은 후보 명단에 올랐지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맨유는 13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뉴캐슬과 홈 경기에서 호날두가 혼자 세 골을 몰아넣고 카를로스 테베스(2골)와 리오 퍼디낸드까지 골 잔치에 가세해 6-0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맨유는 버밍엄 시티와 홈 경기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아스널을 끌어내리고 선두로 복귀했다.

## 이천수 후반 20분간 출전

이천수(27·페예노르트)가 13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데 퀴프 홈 구장에서 열린 PSV 에인트호벤 경기에서 후반 27분 교체 출전해 20여분을 뛰었지만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페예노르트는 결국 0-1로 또 무릎 꿇었다.

# 이정수 빙속 500m ‘금’

## ISU 세계주니어 선수권

한국 남자 주니어 쇼트트랙의 기대주 이정수(광문고)가 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주니어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이정수는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볼자노에서 계속된 대회 이틀째 남자 500m 결승에서 42초453으로 결승선을 통과, 캐나다의

블라이스 길리엄(42초605)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함께 결승에 오른 이한빈(한국체대)은 1분24초584로 4위에 머물렀고, 여자 500m에 나선 손수민(세화여고)은 준결승에서 3위에 그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밖에 남녀 대표팀은 계주 2,000m 준결승에서 나란히 1위를 차지해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룩펠리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가격
남양주	3,450	1,700
남양주	4,400	1,900
승주	8,200	2,100

상담문의 (062)351-0095